

#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첫 포럼

# 탐마루 친환경 쌀, 선풍적 인기

### 익산시, 25일 개최 참가자 사전모집... 국제 교류 통해 실현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의 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인 익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6월 25일 익산시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제1회 전북포럼'이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전북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요특례와 관련한 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장이다. 국외 선진사례를 구체화해 전북자치도가 나아가고자하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전북자치도 특례 중심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특별 연설과 기조 연설, 세션별로 진행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우선 빈센트 마틴 FAO UN 혁신국장,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칼리다스 세티 노스다코타 주립대 교수가 지역 발전의 성장엔진, 농생명산업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각각 특별연설을 펼친다.

기조연설자로는 김홍국 하림그룹 대표가 나선다. 김홍국 대표는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 베르헨 외계농업대교수와 리 노벨 네덜란드 대사관 농부참사관 누네스 MS사 수석연구원, 밍리 비타고라 클러스터 국제개발 책임자 등 해외 인사를 비롯해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송재원 식품진흥원 산업본부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등 국내외를 망라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한다.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은 "이번 포럼이 글로벌 농생명 우수 선진사례 등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시, CJ·SPC 그룹 등 대기업·학교급식 공급

고품질 쌀로 인정받는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수도권 학교급식은 물론 대기업들의 대표 상품 생산에 공급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익산시는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농업인이 유통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수도권 자치구 방문을 통해 익산 탐마루 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농가 재배 교육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인증업체와는 별도로 제조제 살포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있다.

또한 매년 8~10월 초까지 행정과 농업, 생산자지 대표, 민간심사위원이 참여하는 품질검사를 구성해 전체 면적에 대한 현장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잔류농약 분석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쌀 선별 작업을 추진한다.

그 결과 탐마루 친환경 쌀은 익산시

학교 급식 시장을 넘어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등에 연간 1,250톤의 쌀이 공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실시된 성동구 친환경 쌀 공급선정 3차 평가(품평회)에서 진행된 블라인드 밥맛(식미) 평가에서 익산시 탐마루 친환경 쌀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며 그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탐마루 쌀은 CJ 햇반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유기농 CJ 햇반'의 원료곡으로 사용되고 있고, 파리바케트의 히트 상품인 '제주마음샌드'의 원료곡으로도 사용되는 등 대기업사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김형순 바이오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익산서 펼쳐지는 백제여행... 2024 백제문화유산주간

###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충남 공주·부여와 함께 교육·체험 등 26개 프로그램 선보여

익산시에서 백제문화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왕궁리 유적)을 비롯해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에서 '2024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백제문화유산주간'은 지난 2015년 7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백제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익산·공주·부여국립박물관, 공주시, 부여군,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백제문화유산주간'에서는 교육·전시, 공연, 체험, 홍보 등 2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먼저, 백제 유적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진 대표 프로그램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오는 30일 익산을 시작으로 5월 31일 공주시와 6월 1일 부여군에서 각각 개최된다.

'백제문화유산 녹턴'은 야간 프로그램으로 백제왕도의 핵심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한 여름밤 클래식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신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백제문화

유산주간 누리집(www.bakjejiguan.com)에서 가능하고 지역별로 선착순 60명씩 모집한다.

이 밖에도 △전시기획자(큐레이터)에게 듣는 전시해설 △백제왕궁 놀이터 등 교육·전시를 진행해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현장 투어 이벤트 △백제유산 활용 만들기 체험 △김장맛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백제문화유산주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 시해 근해연승 연합회에서 군산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군산 참홍어 시식회를 21일 개최했다.

### 군산시해근해연승연합회, 군산 참홍어 무침 시식회

(사)군산 시해 근해연승 연합회에서 군산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군산 참홍어 시식회를 21일 개최했다.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 열린 시식회에서 군산시는 홍어관련 영상상 직원들에게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렸고 설문조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향후 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승연합회에서는 그간 군산의 참홍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수산물 박람회,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군산 참홍어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 참홍어는 미끼 포획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맛과 신선도에서 다른 홍어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군산에서는 현재 홍어잡이 근해연승 배가 13척이 등록되어 조업하고 있으며, 군산홍어 전국 점유율도 지난 2017년 2%에서 2021년 48%로 급증

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군산홍어 TAC 지정(1,351톤 배정)이 되는 등 군산시는 전국 최대 홍어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임세종 연승연합회장은 올해에 10회 정도의 참홍어 시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군산 참홍어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역시 전국 최대 홍어 생산지로 급부상한 군산을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군산 참홍어 명품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참홍어를 활용한 군산의 대표 식품 발굴, 타이포 그래픽,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고 2024년에는 패키지 개발, 홍보·마케팅 추진, 이력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군산=이재춘기자

##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모델 홍보활동 개시

2024년 제12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시민모델 선발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시민모델 3팀이 포스터 촬영을 통해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군산시는 시간여행축제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축제 대표모델을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총 180팀이 참여해, 이중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3팀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팀은 시간여행축제 포



포스터 제작을 위한 촬영을 이미 마쳤으며, 22일 시상식 이후에는 2024 군산시간여행축제의 대표모델로서 본격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간여행축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 주도의 축제 자립이다.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축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시간여행축제는 'Hello Modern,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4일간 구시청광장 및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군산=이재춘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교통신호기 전기 설비 6월까지 안전 진단

익산시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와 함께 6월까지 교통신호 시설물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호우에 따른 교통신호기 고장과 누전, 합선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신호 시설물 총 973개에 대해 △전기설비 배선 상태 △누전차단기 등 작동 상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측정 △외관 점검 등 전기설비 주요 안전 항목들을 점검한다.

익산시는 점검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정비를 진행해 교통신호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재수경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점검기간에 일시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차량 운행에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군산시, 야간관광도시 실무협의체 역량 교육

군산시는 21일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실무협의체 부서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해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실무협의체는 신원식 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간여행마을 일원 야간관광 보전·관리·정보 교환 등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경관과 업무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올해 1월 구성되었다.

이날 교육은 미디어콘텐츠, 야간관광연출 전문가인 (주)인미더 김학진 대표를 초청하여 국내 및 해외의 야간관광 사례, 야간관광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력까지 최신 야간관광 트렌드를 공유하는 한편 실감나는 콘텐츠와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